朝鮮日報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電話光化門三七二番 振替口座京城四○九九番
編輯兼發行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購讀料 壹個月金六十錢 [illegible]
廣告料 五號活字十五字詰一行金一圓 [illegible]

日本現政局에對한觀察

一般이皆知함과如히目下日本의內閣은山本氏가總辭職을斷行한後에組閣의大命이樞密院議長淸浦奎吾氏에게降下함을報하는바氏는暫時猶豫를乞하엿다하나幾日以內에淸浦氏의內閣이果然히出生할는지不知하나다시氏는內閣을成立하라고準備中인바同氏는官僚閥의有力한者를網羅코저함으로부터普通興論이十分排斥하지아니할氣勢를示하고政友會에서는好意가無한中立을嚴守한다하나氏의內閣이成立되고안는與否를不問하고左右間前途는架嶮키難한現下政情이라할지로다

그런대日本의現政局을觀察코저함에以上은英論하고政友會와其閣의原內閣과原內閣의繼續인高橋內閣과政友會內閣의變態인加藤內閣과또는加藤內閣에加藤氏의生命과갓치告終하고山本內閣이成立되엿스며山本內閣이總辭職을行하고淸浦內閣이出現하다는世間六七年의政情을論할진댄政友會一派가政權을專擅하고國民의要望을多少無視한官續이有함은誰라도肯定할바이지만은或如何히思하면一般民衆의政治에對한實地的覺悟가畢竟幼稚한程에有한同時에政治의民衆化한程度가아직일반으로도幾個年을現象으로存續한다하야結局政權이政友會手中에脫出될것이到底、難事가될지니그理由를擧하면如左하도다

普通選擧一點이原內閣以前에도問題에上下하지아니함은아니엇스나該問題에對한運動이漸次로熾烈하여지기는原內閣時代로부터의事인데爾來로民衆이團體하고內閣이變換할時마다반드시一回要求가民衆側에서提起하엿지만은畢竟時期尙早라는政府의推托的로因하야今日까지至하엿스나政友會政府의忖度하는바에만일普選을實行할진댄自黨의地盤이動搖될念慮를爲함이니普選運動을되도록遲延키고되도록阻止코저하야今日까지至하엿슴은勿論이라 [illegible] 中間六七年에議員의總選擧를擧行하엿스며內閣이幾回를形式으로라도變更되엿슨즉 [illegible] 運動이한일徹底한程度下에서根本한事이라 [illegible] 憲政會와革新俱樂部를擁護하야서政治의根本點을明하야政革의要求를貫徹코저함 [illegible] 何보다도必要하지 [illegible] 그根本에對한政革은放漫히作謂하고다만氣味가不同한者에게그要望을强請한效力이엇지發生하리요過回英國의理想戰에勞働黨의意外로好結果를得하야將且保守黨內閣으로하여금自黨에게政柄을讓移치아니치못할境遇에處하게하엿스니英國民의政治에對한識見과日本人의政治에對한擧措를比較하면그得失을可히斟酌할바가아닌가

如此한政情임을不拘하고山本犬養後藤等이人民의要望을克副한다는美名下에서居然히內閣을組織하고多年宿題로由來하든案件을提出코저하엿스나그네들의前途가絕對로平坦치못할것은預定한바이라

時局이不穩하도다도그抱負한바를實行하기가困難하겟거늘하물며그러矢激烈한災禍期를際하야政友會의怒를觸하는問題를解決코저함이리요同內閣의前途를辭職하기前부터우리가悲觀함이此로由함이라그더욱今回에如何한事件의突發됨이無하여도그內閣의運命이短期가될것을預測한바이어니와次回內閣이淸浦氏의手로成立되면以後政情이엇더할것을想像할진댄다만일氏로하여금政友會의同情을得하야惟命是從의方針을取하기前에는完全히危局을收拾할實力이有하다云치못할바이요一節을更進하야言하면成立될것이라도거위無望이라할지라此等情形을綜察하야言하건대日本國民의政治의根本點을廓淸하지못하여서政權이政友의手中에入하기까지는擾擾紛紛의狀態를繼續하리라하노라

「랏셀」의哲學及社會改造論 (二)

此等의社會主義者는官僚的國家社會主義者의單純히解決할것이다 彼는科學과藝術界의가장知名된人士로부터成立한一團을選任하야그職業을靑年의勞作을判斷하야彼等의鑑賞眼에맛는勞作에免許狀을下附할것이다 그리하야免許狀을得한藝術家는美術品을制作하야自己의社會에對한義務를履行하엿다는데相違가업다 그러나勿論엇더한制作이든지適當한分量을製作하야自己의勤勉을證明하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 그리하야大家의判斷에適合될만한才能을繼續하야長久한時間에自己가스사로批判할만 [illegible] 如斯히當局者는藝術家自己의藝術이最良한傳說에가장適合한일을保證한다 그러하야이러한條件을實行하지아니하는者는批判에合格되지아니하는者임으로 [illegible] 國家社會主義者들의理想이다 [illegible] 勿論藝術은人生의野性을美로論하는것이人生으로부터藝術家와官僚的政治家와의間에는恒常深淺이잇다 그리하야一時代를通하야 [illegible] 藝術家는恒常 [illegible] 表面上으로는敗北하나그러나人類의生活에歡喜를持來하는點으로보아서 [illegible] 藝術家는人類의義務를엇고 最後의勝利를엇는것이다 萬一人性의野性的方面이永久히仁愛로써無理解한官僚政治家의常規에束縛되지아니하면아니된다하면此는人生의歡喜를抛하고 [illegible] 遂히生코저하는衝動그것이枯死함에이를것이다 如斯히死滅한世界보담은차라리千倍나恐怖를加한現在의世界가훨신조타하겟다 萬一그러면自然히또한自由일것은거게서何等의價値를付할바일것갓트면常規에拘泥하는國家社會主義보담導히만흔危險을伴한無政府主義가나을것이다 이惡夢이藝術家及一般美의愛好者로하야금조곰만하면社會主義를疑心케한다

新社會의建設 (七四)

廣永源

是는日本인데리켄차의我利心理에서無自覺한自殺的行爲이나此等의者에對한勞働者의反感은當然히이잇다 그러나인데리켄차로서理論되는時에는勞働者의友人인指導者라고稱하면서一旦自己의不利益이되는時에는其偽善的本體를露하는背向의者를勞働者가見하는時에는漸次彼等의智識階級에對한怨恨을深한것은조금도怪異치아니하다 何故이던지如斯와如히從來인데리켄차는勞働者의信賴를失하고侮蔑함에至한것이다

그러나此難關에逢着하야 [illegible] 勞働者의指導者이다 此等의人은內心으로는勞働者에對한것은眞正한勞働運動의指導者에立하는것은眞正한 [illegible] 今日의資本主義的經濟組織에서는不合理한 [illegible] 最히不合理한 [illegible] 者階級의解放을 [illegible] 그리서勞働運動이 [illegible] 에進步하야 [illegible] 今日과如히經濟的不況의襲來에伴하야一般勞働者의士氣가頗히沮喪하고잇는때에는是를統制하야自己의信하는理想에向하야突進하기가容易치못할것이다 元來日本目下의狀態는勞働運動指導者의勞働運動에關한理想과見識과目標와一般勞働者의其等과는非常한懸隔이잇는故로是는一面으로부터보건것갓흐면흥흥한事이나他面에는又勞働運動을하는時에非常한困難이잇는것이기는日이少하다 更히此等의勞働運動者는精神的으로는難境에立할뿐아니라 一方에서는又生活上壓迫에도打勝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此等의人々은日常으로極히少額의收入을가지고生活을하고잇는것도不拘하고反動이來할때에는失業者가頻出하는結果自然히勞動組合員의會費納入도滯納하기를任意로하게되여 [illegible]

三、失業問題와勞動의目標

資本主義的經濟組織下에는經濟的不況과失業問題와는相離치못할關係를가지고잇다 然이나失業은單히勞働者로부터職業을奪할뿐만아니라勞働者와밋其의妻子로부터生活의資를奪하다 經濟界가好景氣로될때에는勞働者는團結力으로써其의賃銀의增加를要求하나經濟界가不景氣하게되는時는賃銀을減下하는者도나을것이다 資本家는 [illegible] 或은從來의賃銀率을低下시키고자하는者도나올것이다 그러나資本家가勞働者의解雇를하고자하는時는彼等의 [illegible] 一部를解雇시키고 [illegible] 業縮少의 [illegible] 其他의 [illegible] 勞働者의數를減少시키고 [illegible]

서그픈後悔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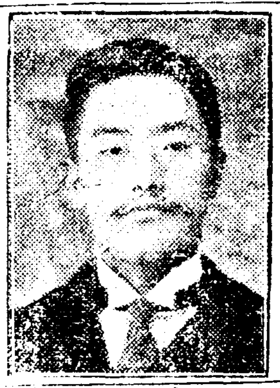
玄洲

『그리나이여 가지고오겟나!』
『오면 엇더?』
『아이구 來日 너가 안이와야겟다』
『왜 누가 어이여 가지고 오겟나?』
『보자 갈만하면가지!』
『來日 와?』
『來日안이오고는 안되겟나?』
『웅 지금 藥을주어도 못치마는』
『그럼 그와도 더우親타』 『來日와 幽靈의마음갓치보인다』
[illegible]

謹賀新年

淸安驛前 陸南物産 食糧肥料 委託販賣 東鮮商會 主 崔基澤
淸州西町 代書業 李炳圭
淸州淸水町 雜貨商 朴魯喆
淸州本町 布木商 金亨培
淸州南町 代書業 宋在善
淸州旭町 理髮所 李榮九
淸州 代書業 趙文行
淸州本町 金銀細工所 崔鉉東
淸州本町 代書業 趙東昇
淸州江西面 李斗永
芙江驛前 海陸物産 貿易商 新興商會 主 全台卿
淸州支局米院出張所 所長 李鍾協
淸州本町一丁目 新興洋靴店 主 鄭在德
淸州市場 漢藥商 盧鳳洙
米院市場 醫師 申健雨
米院面事務所 職員一同
淸安驛前 和洋雜貨 李昌文
淸州四州面外德里 貿穀商 陰信炯
淸州 私立大成學院
淸州南一面銀杏里 吳炳允
淸州江西面新田里 金海鉉
淸州淸水町 醫生 李亨列 李興列
淸州大黑町 永信堂 鄭柱海
淸州旭町 自轉車商 主 李元植
淸州市場町 金思明
淸州 有志 元光漢
淸州四州面 鄭泰煥
金敬浩
閔泳敦
密陽城內 錦布商 李善杜
鄭武元
金龍甲
密陽驛前 滿鐵承認 交計加盟 大 韓春玉運送部
米穀商 朱奉文
密陽 二興商店 主 李昌雨
密陽城內 密陽印刷社 主 門田正勝
米穀商 金永奎
米穀商 李基彦
密陽城內 壽元醫院 趙元景
金仁昌
後藤自働車部
密陽城內 旅行中紙上欠禮 金顯水
淸州大黑町 東西醫學 忠北支部長 李亨載
淸安驛前 穀物運送 貿易販賣 山白運送店 主 白斗鉉

湖南線松汀里 德川洞 主任 鄭奭謨
湖南線松汀里 全南殖産株式會社 電話八番
長城郡森西面紅亭里 有志 白南相
全南谷城郡廳 聽員一同
全南谷城警察署 職員一同
谷城石谷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谷城梧谷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谷城公立普通學校 校長 桐田春吉 外職員一同
谷城金融組合 組合長 丁奎泰
谷城面信醫院 理事 羽田野仁
谷城郡邑內 醫師 白斗鉉
谷城郡邑內 有志 丁柱泰
谷城郡邑內 有志 梁建植
谷城郡邑內 有志靑年 丁來豹
谷城印刷所 主任 丁錦夏 金奎澤
谷城邑內 醫生 鄭援朝
谷城郡邑內 建築土木請負業 上池榮吉
谷城郡邑內 梁景浩
谷城郡邑內 乾材局 [illegible]
谷城郡石谷面 面長 孫在燮
谷城郡石谷公立普通學校 校長 中田眞一 外職員一同
長城郡北二面達城里 有志 金冕洙
湖南線松汀里驛前 朝鮮企業株式會社 電話一四番
湖南線松汀里驛前 松汀郵便所 所長 木村太郎吉



主任 朴順琪
朝鮮日報湖南出張所 所長 金鐘鉉 會計 朴夏麟 記者 梁圭南 同 洪興坤 記者 朴禹鎭 同 黃致云 顧問兼記者 金昌泳 顧問 徐炯規
謹啓客年中에는湖南地方諸位의深厚한援助를多蒙하와感謝萬千으로여이오며同時에新年을迎하고서복을서롭게비나이다本年에도一層愛顧하심을바라나이다

谷城郡石谷面後坡里 有志靑年 孫亮燮
谷城郡梧谷面梧枝里 有志靑年 白洛珩
谷城郡梧谷面 有志 吳基泳
全南潭陽警察署 署長 佐佐岡齊 警部 岡田廣志
潭陽面長 金齡泳
羅州郡守 安鍾哲
羅州面長 金顯浩
羅州邑內 有志 鄭安民
全南靈光郡廳 職員一同
全南靈光 博士 曺喜暻
全南靈光 有志 曺喜陽
全南靈光 有志 曺㑲鉉
靈光邑內 有志 鄭泰熙
全南靈光 靈一自働車商會 (靈光法聖浦間 靈光松汀里驛間 靈光鶴松驛間 毎日往復 親切叮嚀)
靈光郡西面月谷里 有志 朴正煥 有志 朴寅煥
靈光朴正煥家小作人金融組合
靈光水利組合 木村民 堀行衛 李忍 鄭仁瑛
靈光珍明小作人組合
靈光郡南公立普通學校 尹雄 鄭相 [illegible]
靈光郡郡南面浦川里 農民組合長 李春仲

靈光法聖浦 法聖面長 張大鎬
咸平郡廳 職員一同
咸平郡森林組合 職員一同
咸平警察署 職員一同
咸平郵便所 眞田靖二 姜熙中 朴四根 牟時浦
咸平邑內 宮田醫院
咸平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平邑內 代書業幷印刷業 佐伯直光
咸平邑內 宮田一志
咸平郡咸平面咸平里 李載昇
咸平邑內 (新設) 海東理髮館 主 趙甲珠
湖南理髮館 主 朴濟萬
咸平邑內 長坂自働車部
咸平郡大洞面事務所 面長 李康均 外職員一同
咸平郡新光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平郡新光面松士里 李俊範
咸平郡新光面柳川里 金東昕
咸平郡新光面月岩里 李圭桐
咸平郡新光面桂川里 坂元敏夫
咸平郡孫佛面冬岩里 金炳寅
咸平郡孫佛面山南里 全泰鉉
咸平郡孫佛面弓山里 朴相權

咸平邑內 李載麟
咸平邑內 牟星煥
咸平郡鶴橋面事務所 韓鳳燮 吳鳳雲 魯塤洙 尹燦楨 朴炳華 朴元範 尹相賚 鄭順基 金性午
湖南線鶴橋驛前 田聖魯自轉車店
湖南線鶴橋驛前 ㊍運送店 藥種商 丁奎桓
咸平郡嚴多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平郡平陵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平郡海保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平郡月也面事務所 面長 金奎燮 外職員一同
咸平郡月也面外峙里 高在滿
長興邑內 雜貨商 申宗徹 吉定相
長興邑內 有志 金泳完
長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長興 光州地方法院支廳 書記 朴容淳
長興邑內 有志靑年 金或在
長興邑內 有志靑年 周定鎬
康津郡廳 郡守 金永近 財務課長 八澤正曹 勸業課長 金炯運
康津靑年會
康津邑內 有志 金永準
全南光州郡松汀面道山里 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 朴鳳杵

中國時局

議院問題解決策

議會는 新春에 開會

(北京電) 衆議院은 總選된 議員의 紛糾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 去三十日에 保定派、反吳派及中立各政黨의 領袖가 會合하야 第二回協議會를 開한 結果(一)守衛問題는 中立派議員으로부터 內務部에 派遣의 撤廢를 交涉할事(二)歲費問題는 各政黨에서 一名의 代表를 擧하야 財政部와 交涉할事(三)議會開會는 談話會를 開한 後에 開會의 時日을 定하고 議員選擧를 行할事로 決하고 守衛、歲費問題의 交涉이 順調로 進行하야 支障이 生치 아니하면 議會는 新春早々에 正式으로 開會하게 되리라더라

憲政黨解散을 勸告

吳佩孚氏急電

(北京電) 吳佩孚氏는 急電으로써 曹總統에게 政府가 組織한 憲政黨을 攻擊하야曰

金錢으로써 國會의 不良分子를 買收하야 國會를 擾亂케하며 또 閣員의 多數가 理事됨을 指摘하고 이러한 政黨의 存在는 그 累를 總統에게 波及하는 故로 該政黨을 解散케하거나 閣員全部를 脫退케하든지 總統의 英斷을 希望하노라

以上과 갓치 强硬한 勸告文을 送하얏슴으로 總統은 高代理總理를 招致하야 商議한바 閣員이 全部脫退하게 될지오 吳佩孚氏가 突然히 이러한 態度를 取한것은 保定派와 親密치 아니한 吳景濂氏와 天津派가 連合하야 吳佩孚氏를 衝動한 것이니 曹錕、吳佩孚兩氏間의 惡感을 挑發한 第一이라고 觀測한다더라

下院議員改選日決定

(北京一日發電) 曩日의 大總統令으로 本年의 衆議院議員改選日을 本年四月十四日、五選日을 五月十四日、蒙古、西藏、靑海는 五月二十日로 決定發表하얏다더라

王總長의 軍政費交涉

(北京電) 財政總長王克敏氏는 陽曆年關의 財政에 關하야 中國、交通、金城、鹽業四銀行間에 三百二十萬圓의 軍政先當交涉이 成立되야 民國十二年의 年關을 無事經過하게 되얏더라

米國情報

米國勞働卿提議

移民入國取締法案에 關한件

(華盛頓二日電) 米國勞働長官「데뷔스」氏는 移民入國取締法案에 關하야 議會에 諸提議를 提出하고 其定員數를 議定할 議會에 委任하얏는데 右提議中에는 이와 갓흔 事項이 잇다더라

第一、出發港의 選拔試驗

第二、勞働爭議로 因하야 勞働의 供給不足이 依然한 期間에는 定員制限中止件

第三、失業時季中은 移民入國의 中止

第四、永久히 移住할 意志가 업는 外國學生과 海員의 入國許可及登錄

第五、移民法을 擴張하야 加奈陀、墨西哥及南米에도 波及할事

勃牙利徵兵問題

(베르사라드電) 勃牙利首相「조안코푸」氏가 議會에서 徵兵事로 一場演說한 것은 多大한 反響을 惹起하야 勃牙利와 塞耳維亞國關係는 매우 危機에 陷하얏스며 首相「조안코푸」氏는 議會에서 勃牙利의 諸外國在住民의 待遇問題에 言及한 後義勇兵制度를 廢止하고 徵兵制度를 施行하라함으로 聯合諸國의 許可를 得함을 希望한다 述하얏는데 塞耳維政府는 此는 勃牙利가 常備軍을 組織하는 것이니 塞耳維에 對한 挑戰이라 解釋하고 內閣은 此問題를 討議한 後「베르사라드」駐在塞耳維公使「라키스치」氏에게 電報로 召還하게 되얏다더라

「루어」占領費支拂決定

獨逸側決心

(루어電) 獨逸政府는 聯合國占領軍備에 關하야 追從關係國과 交涉을 開始할 目的으로 現在一定한 期間中의 占領費에 對하야 最少限度의 範圍內에서 此支拂을 再開하기로 決定하얏다는데 右占領費支拂은 佛軍이「루어」에 侵入以來停止하얏다더라

清浦子推薦理由

松方公도 亦同意

(東京電) 三十日興津에 西園寺公을 訪問한 研究會의 靑木、水野兩子는 研究會의 意向을 考慮치 아니하는 內閣은 此際到底히 成立키 不能하다는 理由를 屢述하야 畢竟公도 亦是此에 共鳴한듯하야 故로 平田內大臣에 勅命을 傳達할 時에 園公은 左의 諸點을 擧하야 清浦子를 推薦하고 松方公도 亦是此에 同意한 것이라더라

一、上下兩院에 勢力이 잇는 團體와 妥協하야 政權을 圓滿히 運用할 人物은 清浦子爵이 適當한 事

一、人心을 平穩케하고 惡思想을 安定케하야 不遠에 擧行할 嘉禮에 奉仕할 內閣은 清浦內閣이 가장 適任으로 認한 事

研究會와 有松氏

入閣을 拒絶

(東京電) 研究會에서는 有松英義氏를 問題로 하는바 萬若有松氏가 入閣하야 內務大臣의 要職을 占하게 되면 研究會는 清浦內閣과 提携함을 拒絶할지라 即有松氏가 入閣할지라도 要職을 占치아니하고 또 研究會에 服從할 條件이면 有松氏의 入閣을 研究會가 阻止치 아니할지나 萬若有松氏入閣에 此條件이 成立치 아니하면 研究會와의 提携는 破裂될 것임으로 有松氏의 態度를 매우 注意한다더라

研究會領袖密議

(東京電) 二日午前九時부터 華族會館에 大木遠吉伯、靑木信光子、小笠原長幹伯、大河內正敏子、水野鍊太郞子等이 會合하야 清浦子에 對하야 取할 態度를 密議한바 午前十時五十分에 大木伯과 靑木子는 樞密院事務局을 訪問하얏다더라

會見結果報告

研政接觸의 端緖

(東京電) 清浦子와 會談한 大木伯、靑木子兩氏는 二日午前十一時四十分에 一次華族會館으로 歸還한 後大木伯은 小笠原伯、水野子、大河內子、福原男四氏에게 對하야 報告하고 또 一方으로 靑木子는 橫田千之助、鳩山一郞、宮田光雄三氏와 會見하야 清浦子와 會談한 結果를 報告하얏는데 此는 研究、政友接觸의 端緖로 見할 것이라더라

靑木、橫田會見

內容

(東京電) 永平俱樂部에서 靑木信光子、橫田千之助兩氏가 會見한 時에 靑木子가 橫田氏에 提議한 點의 要領은 아래와 갓흐니 即 清浦內閣이 成立하면 研究會는 此를 中心으로 援助코자 한즉 政友會에서도 閣僚로 參與함을 希望하고 萬若此가 不可能하다 할지라도 될수 잇는대로 援助함을 望하는바 此를 承諾하면 清浦內閣은 無條件으로 政友會의 政策을 實行한다云々 橫田氏는 即時此를 高橋總裁에게 報告하얏다더라

內閣組織準備

閣員은 研究會에서 任命

(東京電) 靑木信光子와 橫田千之助氏가 永平俱樂部에서 會合한 後 政友會最高幹部會가 開催된바 清浦子組閣의 準備는 其成否가 何如間에 進展한지라 即確聞한바에 依하면 清浦子의 意向은 政友會의 諒解를 得하야 貴族院內閣을 組織코자 하는 것이니 清浦子는 靑木子에게 此意를 傳하는 同時에 同氏에게 閣員의 銓衡과 政友會와의 連繫할 事等을 一切委囑한바 即靑木子는 二日朝永平俱樂部에서 橫田氏와 會見한 後清浦內閣組織의 方針을 說明하고 政策에 關하야는 全部政友會側의 主張과 同感인 故로 充分히 此를 容認할터이니 此際無條件으로써 清浦內閣을 援助함을 望한다는 意味를 述한 結果急遽히 政友會最高幹部會가 召集된바이오 一方으로 小笠原長幹伯은 政友改革派의 中橋德五郞氏를 訪問하고 그 諒解를 請하라하얏스나 不在中으로 會談치 못한지라 事情이 如斯한즉 政友最高幹部會가 엇더케 決定할가함은 政局의 推移上에 至大한 關係가 잇는바 萬若政友會가 靑木子의 希望을 容認하면 清浦內閣은 即時成立하고 閣員의 大部分은 研究會에서 任命할 確實하다더라

政友會最高幹部會

內閣援助問題

(東京電) 研究會議의 清浦內閣援助提議에 對하야 政友會에서는 急遽히 最高幹部會를 開하게 된 故로 高橋總裁邸에서는 二日午後二時半頃부터 中橋、小川、三土、松本、望月、岩崎氏等이 續々參集한 後協議하야 靑木子에게 此意를 回答하얏스며 一方으로 清浦子는 三日中에 參內하야 大命拜受를 奉答한 後華族會館을 事務所로 하고 內閣組織에 着手함을 決定한바 閣員에 對하야는 旣報함과 갓치 靑木子가 決定한다더라

(東京電) 政友最高幹部會는 二日午後三時總裁邸에서 開會하고 靑木子가 希望한 清浦子大命拜受에 될수 잇는대로 研究會와 政友會의 意志가 疎隔치 아니함을 希望함에 對하야는 政友會도 同樣으로 此를 希望하나 清浦內閣에 援助할 與否는 아즉 此를 決定할 時機가 아니라 함에 一致한 後四時에 散會하는 同時橫田氏는 靑木

研究會觀測

(東京電) 研究會에서는 二日午後二時頃靑木信光子가 研究會에 集合한 同會幹部에게 清浦子로부터 委囑된 內閣組織에 關한 件을 詳細히 報告한바 研究會에서는 政友會의 態度가 決定되면 內閣은 即時銓衡을 終了하야 即日이라도 親任式이 擧行될 줄로 觀測한다더라

清浦子大命을拜

(東京至急電) 清浦樞府議長은 三日午前十一時三十分에 參內하야 大命을 拜하는 奉答을 上奏하얏더라

大命拜辭理由

(東京電) 清浦子爵은 三日午前九時華族會館에서 語하야 曰 午前中에는 左右間 決定하게 되겟다 하얏는데 其後 靑木信光子의 [illegible] 三日朝研究會幹部가 會合한 結果 [illegible] 定範圍에 對하야 清浦子의 意見과 一致치 못하야 清浦子는 畢竟大命을 拜辭하기로 [illegible]

朝銀移管과 財界

朝銀移管問題는 井上前藏相、齋藤總督과 有吉政務總監의 意見이 一致되야 大藏省移管으로 決定한 結果朝銀法改正法律案을 通常議會에 提出

도 朝銀은 他銀行에 比較하야 特殊事情이 回收不能額이 朝鮮外에 多하고 朝銀에 對外發展이라는 名義下에 財界好況의 産物인 放漫貸出이 一般的의 打擊을 受하야 瀕死의 狀態이오 朝銀의 營業範圍는 顯著히 朝鮮外에 擴大한 者多한 問題와 關聯하야 大藏省移管說이 發生하얏스나 總督府側에서는 朝鮮從來의 行政組織에 鑑하야 朝銀移管問題의 骨子인 支店設置理事任命 認可銀行券發行定款變更 配給制限其他業務를 監督할 權能을 大藏大臣에게 移함은 考慮할바이라 하야 此問題는 遷延中이더니 台銀의 例도 잇고 또 營業範圍가 擴大하야 朝鮮外의 放漫貸出도 甚大한 外에 整理資金難에 困憊한 形狀과 將來를 考究하야 大藏省移管도 此時機이라고 朝銀이 決定한 것이라 從來에 擴張을 受한 朝銀은 日本大震災에 準據하야 直接間接으로 一層의 打擊을 蒙하는 바 됨으로 何如間 此를 整理하야 所要資金의 供給을 受한 後朝鮮內의 金融事業界에 救濟함이 必要한 것을 唱道한다더라

朝銀投資準備

朝鮮銀行이 大藏省移管과 同時에 預金部及日本銀行에서 資金의 融通을 仰하야 一部의 整理資金에 充當하고 大半을 朝鮮滿洲方面에 對한 投資即積極的活動資金에 使用할 方針인대 該計畫은 最近畢竟具體化된 模樣이라 今回에 突然最近의 滿蒙事情에 精通한 同行城津出張所支配人竹末府辰氏를 拔擢하야 東京支店總務課調查役으로 任命한 것은 全然此가 初準備인듯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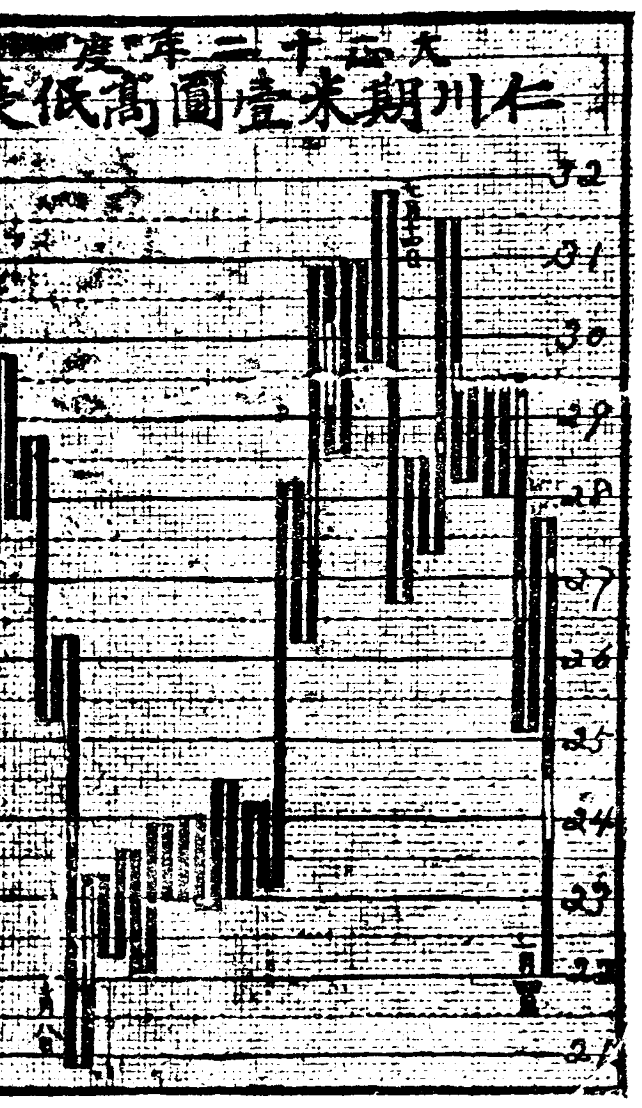
孝子節婦表彰

總督府에서는 今四日附로 褒章條例에 依하야 左記孝子節婦에게 金圓을 與하야 表彰하얏더라

孝子 全南羅州郡潘南面新村里 鄭

昨年中 仁川期米高下表

大正十二年中仁川期米의 戰跡에 對하야는 去二日本報第二面에 詳細報道한바이어니와 昨年一月四日에 百三十丁上鞘로 發會한 後低落의 事情은 小毫도 無하고 初春以來로 地方産米의 賣惜과 二月分의 政府米買上說 又는 植付時의 旱魃等四圍의 情勢가 無非硬材料임을 씨라 連月紛騰하야 七月十四日에 三十一圓八十一錢의 昨年度의 最高價를 生하고 此로부터 二十圓大關門을 中心으로 하야 一張一弛하다가 土用時期의 天候順適과 九月二日의 關東地方大震으로 因하야 天災地斯와 如한 大暴落의 形勢로 十一月八日에 二十圓八十五錢의 最低價를 演出한바 一年中高低의 差가 一千九十六丁이엇스며 十月부터는 震災暴落은 神經銳敏한 時勢에 不適하다는 各地商談이 區々하야 反히 暴騰하기를 始作하야 稍々高調를 示할새 其間事情은 軟材도 不鮮하엿스나 春高價로 預測하는 人氣는 더욱々々 硬化하야 結局十二月二十六日에 二十九圓五十九錢에 頑强히 大納會를 告하엿는데 年中暴落의 白丁線을 表示하면 左와 如하더라



民聲

▲朝鮮敎育界에 成績이 著大할만치 著大하고 年齡도 長久할만치 長久한 前普成中學校 ▲現普成高等普通學校는 지난 光武丙午間에 故李容翊氏가「朝鮮의 將來는 敎育에 잇다」는 趣旨로 創立하엿던 것이 昨日과 如함은 우리의 記憶에 새로운 것이다 ▲그런데 그 中間에 만흔 波瀾을 다 지나 天道敎의 經營으로 넘어 갓다가 새로 그것이 變更되여 朝鮮佛敎總務院이 經營하게 됨에 또 再昨日에 舊經營者 天道敎側과 新經營者 佛敎總務院側이 同校內에 會合하야 送迎의 禮式을 맛첫다 한다 ▲旣往은 고마두고 天道敎가 經營한지 拾有二年에 三十萬圓의 巨金을 投入하야 五百名의 英俊을 養成한 그 成績으로 말하면 그 또한 特別한 貢獻과 功效라 할터인데 事情에 依하야 이것을 引繼함은 一般敎育界에나 그 當事者된 天道敎나 感慨가 無量할 것은 定한 일이다 ▲그리고 佛敎總務院으로 말하면 그런치 朝鮮敎育界에 巨大한 事業을 新着手함은 果然 慶賀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大慈大悲하고 無生無滅하는 佛祖의 五眼으로 보니 朝鮮의 現在를 보면 普渡의 一念이 深切할 것은 勿論인 同時에 佛敎가 朝鮮에 온지 一千五百五十一年에 처음 事業되는 것을 思量하야 始終이 完美케 할 것이라 하다

商況

仁川期米

期米와 研究 (四)

七月米 七月은 所謂靑田賣의 時代인 一段低價를 演出하는 것이 一恒例이라 中旬以下는 前年의 米를 賣盡한 第一期端境時代임으로 中大農家에서도 土用의 日和及其他天候의 良好를 眺하고 手持米를 一遲賣放하는 일이 多한바 普通順序로는 六圓의 高調 옷치 七月의 天井을 作하는지라 六七月의 高價를 生하는데는 八九月에 下鞘가 되는바 此가 곳 彼岸底入이라 하는 것이다 然而本月은 前天災에 入하는 時임으로 實로 天候次第에 依하는 것이라 若前年이 凶作일 것 갓흐면 天井을 作하지 못하는 原則이며 翌月(八月)은 本海上期인 一片의 雲도 關係가 多함으로 安心賣는 될수 업스며 또 低落이 될만한 靑田時期에 低落치 아니하는 時는 또한 一考할 必要가 不無하리라 할지로다

八月米 八月은 純天災期에 入하는 其年의 豐凶을 占하게 됨으로 實로 騰落이 激甚한 것이라 七月末頃부터는 天候의 經過를 잘 考察하야 賣買를 할지라도 堅固한 方針을 取하여서는 안이 될것이다 從하야 建米로 너머 播殖하지 말고 機敏히 하여야 할것이라 又新甫는 十月限은 在品缺乏期임을 써라 新米代用이라는 標準으로 反히 先驅的行動을 施하야 下鞘로 되는 事가 有하나 萬一何等의 事情으로 上鞘를 買하게 되는 수도 잇슨즉 此等變鞘時에는 極히 注意치 안으면 안될 것이라 그러한데 天候가 順適하면 또한 中旬頃의 盆田擧라는 一下와 又는 土用潰의 後는 此月에 入하야 轉換되는 것임으로 如斯한 境遇에는 買方으로 乘할만한 好機이나 六七月天井의 米는 其年에 반다시 低落되는 것인즉 너머 買策을 取하지 말지어다

九月米 九月은 秋穗上賣買인데 二百十日、白露、二百二十日、八朔等의 厄日은 漸次臨迫하여지고 人氣는 天候次第로 變遷되는 것인바 此期는 大概賣하야 妙味가 無한 模樣이라 勿論十一月限을 迎하는 靑田의 先約等도 되고 新穀期도 眼前에 隔한바 人氣崩頹한 時를 待하야 買緊하는 것이 定式이라 九月以後에 昇騰하는 해는 古米의 缺乏과 秋日和의 不順한 까닭으로 由함인데 凶豊의 如何를 따라 時宜에 適應하도록 用心할지어다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海岸町三丁目
㊅仲買店
店主 堆浩
電話長一八〇番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桑野仲買店
電話長三九番

發會預想은 約百丁上鞘

昨年十二月二十六日에 納會한 後各地情勢를 據할진대 安南과 中國等地의 米價가 高騰할 뿐인이라 日本의 米價도 幾分高唱되야 納會當時에 大阪新甫發會를 五六十錢上鞘로 預測하엿스나 多少加減이 有할 模樣이며 當地는 一月一日에 正米의 入津이 有하야 幾分緩和함과 共히 一百二十丁上鞘로 預想하엿든 것이 約百丁되리라고 商談이 區々

謹賀新年

馬山府萬町 金秦鎬
馬山府元町埋立地 米穀商 金斗彦商店
馬山府富町 中華料理 亞西樓 電話架設中 主任 余有仁
馬山府午東洞 李鉉敎
馬山府萬町 李相萬
馬山府元町 肥料製造及直輸出入業 朝鮮物產肥料商會 咸安郡北 郡北代理店
馬山府萬町 趙萬奎
馬山府壽町 日曆、商標證書、製本各種印刷 光文舍石版印刷所 主任 兪秉渙 金啓文 金仁九
馬山府萬町 南鮮券番一同
在馬山驛前 ㊀大興運送部 店主 金泰敬
馬山府俵町 海陸物產托販賣及運送業 客主 金達珣 長電話二〇〇番 電略タツレ又ダ
馬山府富町市場 食料品商 太平商會
馬山府午東洞 李聖世
馬山府元町魚市場 魚物商 具尚吉
馬山府元町魚市場 魚類販賣 金鍾哲商店
馬山府石町 구름理髮館 金琪鎬
馬山府石町 金針細工及各色眞佩物各種化粧品 開元商店 主 金相魯
馬山府石町 煙管生產品販賣所 李守益

馬山府石町 藥草唐草乾材新藥販賣 秀鎭乾材局 醫生 朴相采
馬山府元町 綢緞布木 金善周
馬山府富町 朝鮮食鼎及各種粧籠製造販賣 鄭相珍商店
馬山府元町 米穀商 金尚玉
馬山府元町 米雜穀仲米業及托販賣 金龍周又七性賢 電話二六六番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產委托販賣商 鄭熙奎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產販賣商 兪載洙
馬山府萬町 文昌旅館 李圭衡
馬山府萬町 米穀商 尹致斗
馬山府元町 錦布商 金九炫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南士兼商店
馬山府石町 各種粧籠製造販賣商 鄭億秀
馬山府石町 牛肉豚肉販賣 救世堂 主 李尙文

馬山府石町 中華料理 三合樓 主 楊忠信
馬山府壽町 穀物商 李德三 電略トクサン又ハ三
馬山府萬町 南昌醫院 彭在業
馬山府元町 朝鮮物產賣買及委托 普成商會
馬山府石町 東昌理髮館 金鎔贊
馬山府元町 代書業 金根守
馬山府富町 各種粧籠製造販賣商 金周石
馬山府富町 典當舖 沈成中
在馬山驛前 尖浦上運送部 主任 鄭明魯
馬山府壽町 許正五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產委托販賣 姜啓三商店 電略サンヌ三
馬山府元町 大有商店 主任 余有仁
馬山石町 中華料理 大有樓 主任 余有仁
馬山府萬町 鄭泰午
馬山府富町 陸東用達 李相潤 電話三二九番
馬山府富町 賣藥製造兼藥種商 保生堂藥房本舖
馬山府 衡平分社 社員一同
馬山府俵町 漁業 金致洙 電話一六八番
長城月坪 內外科產科 江山醫院 主任 孫正周
長城 郡廳職員一同

長城森溪面事務所 面長 書記 [illegible]
同面協議會員 [illegible]
朝鮮總督府公醫 鎌田方
長城警察署 職員一同
長城學校組合
長城面職員一同
森西面職員一同
長城警察署長 小林信藏
長城月坪市場 荏子油胡麻油製造販賣 雜貨商 織田悅吉商店
長城驛前 有志 吉田直良
珍原面職員一同
東化面職員一同
黃龍面職員一同
北一面長 邊東曄
西三面職員一同
長城驛前 簡易飮食 小松屋旅館
長城驛前 花屋旅館
紳士 朴鐘權
長城驛前 盛田印刷所主任 金舜權
長城金融組合職員一同
全南運輸倉庫株式會社 吉田直良 森本靜太郞 池田悅 潭陽出張所 宮本英一
南面職員一同
蔚山郡廳 職員一同
蔚山金融組合 職員一同

蔚山郡蔚山面 有志 朴宗[illegible]
蔚山郡蔚山面城南洞 有志 金正國
蔚山驛前 穀物商 李圭正
蔚山本府 尹錫山
蔚山機械製造會社 主任 黃奉日
蔚山郡東面尾浦里 金大珠
蔚山郡東面方魚里 潤興商店 李崔命吉
蔚山郡大峴面龍岑里 鄭相和
蔚山郡溫山面江陽里 金浦斗
蔚山郡溫山面牛峯里 朴仁翰
蔚山郡下廂面伴鷗里 漁業 金澤鉉
蔚山郡東面方魚里 漁業 李得雨
蔚山郡溫山面處容里 學校評議員 徐相煥
蔚山郡蔚山面佛敎堂 布敎師 韓雪皐
蔚山郡本町 學生被服店 金得中
蔚山本町 海東理髮館 崔鶴九
蔚山郡東面 海產物商 李信雨
蔚山郡方魚津 海產物商 許讚
蔚山郡方魚津 濟州館 元信文
蔚山郡方魚津 商 金鶴吉
東下廂漁業組合 金斗憲
蔚山郡面魚里 海產商 李大吉
蔚山郡方魚津 商 李明玉
蔚山郡溫山面牛峯里 商 金東[illegible]
蔚山本府 [illegible]基
蔚山本府 醫 [illegible]鳴遠
蔚山本府 醫生 [illegible]年浩

賭博犯逮捕

世子殿下는今日渡東
午前十時發特急列車로
고국에서사일간밧부시다가 금일아침에는다시동경으로

왕세자뎐하께서와 동비뎐하께옵셔는 지난오후한시에 석조뎐을나시와 홍릉에가셔셔 고종태황뎨께 하여 능에 참배하시고 도라오시는 길에 영회원에드사 뎐배하신후 창덕궁에 드사 여셧시삽십분부터 만찬회를개최하시고 창덕궁 광뎐하와 리강공뎐하와 기타 리왕직각고등관외내외귀 가라하시와 여러가지담화나 하시고 또침아하지못할리별의 옥두를 홍니시며 오후아홉시에 창덕궁을 나시와 석조뎐으로 도라가섯다가 금일아츰아홉시사십오분에 오륙일간정겹혓든석조뎐을나시와 경셩역에일반관민의 지송을바드시며 오전열시에 발하는 경부선특급렬차로써나실터이라더라

孝親稧의熱情
苦學堂에金五圓
본사로보내고긔부를의뢰

시내와룡동삽일번디「효친계」라는 계에서는 옹진속에서 새해를맛고 고향의 부모형뎨를 생각하며 처연한회포를 이긔지못하는 동대문밧 안암동「고학당」학생들의 정형을가긍히녀이고 돈오원을 본사로보내고 그학생들에게 긔부하야주기를 의뢰하얏더라

上海僑民團의新事業
義警隊와學務委員會를設置
자치제도와경찰사무를확대

상해에잇는 죠선동포의단톄인 대한교민단에서는 근자에새사업으로 자치제도를 확장하며경찰사무를 집행하기위하야「의경대」를 설치하고 교육행정을 협조하기위하야「학무의원회」를조직하야일반에게포고문을발표하얏는데그내용을 말하면아래와갓다더라

義警隊의設置
지난달이십칠일부터시행

상해에는죠선동포가만히거주할뿐안이라 독립운동에 종사하는지사가만히거류하는바 그중에 불량배가석기여잇서 민족의 리해와의리의엄청함을 불고하고 흑부졍한금젼에 팔니기도하고 흑교활한유혹에싸지기도하야 순서한 리셩을위반하고 차귀의행동을 하는자가업지안이하야 자뎨의 위해를불으고 회면에실청을 모출하는일이 잇다하야「대한교민단」에서자치제도를 충실케하는동시에면져「의경대」를 설치하고 대원과 대장을두어셔경찰사무를 집행케하며 그총지휘는 민단장이 장리 하기로 하야 지난달이십칠일부터 사무를 실시하얏다는데우선「장덕진」「최텬호」등씨를 대원으로선뎡하고「김구」씨로 고문을삼아아죽사무를처리한다하며

學務委員會는
지난달십칠일부터실시

민단의교육행정을협죠하기위하야 민단구역안에거주하는동포에한하야 학식과명망잇는인사로 십인을 학무위원으로선뎡하야 학무위원회를선뎡하고 매년일월과 칠월에 뎡긔회를열고 교육사항을 의결하기로하얏는데 이에대죠례는 지난달십칠일에발표하야즉시시행케하얏다더라(상해)

魚東嶺事件豫審終結
륙개월간텰창에신음하든피고
십사인은긔소되고그외는방면

남죠선텰도대사구공사 소어속령 수도공사장에서 작년칠월분에주국로동자와 죠선로동자사이에큰 충돌이 일어나서 중국로동자사십여명을 구축한일은 당시에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사건이돌발되자 부산디방법원 진주지청검사국과 진주경찰서에서는 소요범으로 검거에착수하야 진쥬로동공제회원반쳣출장소를 주심으로 삽십여명을 구인하야 이래륙개월을두고 예심을하여오든바 지난십이월이십팔일에 예심이종결되여 피고중십사인은 긔소되고 십륙인은무죄로 면되엿는데 그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진주)

起訴 韓永俊 姜柄大 李而燮 方鳳錫 李亨台 朴相和 鄭斗許 高聖贊 朴學守 金述伊 李太龍 姜福岩 金奉三 李炳雨

放免 李永淑外十五人

拳銃自殺未遂
동래온천려관에서 일본인청년한명이

지난달이십륙일오전열시경에동래온천 봉래려관이층 이십칠호실에서일본인서천영친(이십륙세)은권도잇는청년으로 무슨일인지 모로나이쳐상을 비관하고 일곱발류서올지어노코 륙혈포로 자긔복을노핫는데 마침죽든아니하고 마진복부에는 볼근피가쏘다지는것을 려관하인들이 즉시동래경찰서에 통지하야 동래경찰서에서는 복부북권두부장과 지하공의가 현장에가서 응급슈당을하고 자동차로써 부산초량철도병원에 립원케 하엿는데 생명은매우위독하다더라(부산)

仁川龍岡町에大格鬪
朝鮮人對中國人의國際戰
중국인의싸홈하는것을구경하든 김뭉학이가매마진것이원인으로

재작이일 오후여섯시경에 인천룡강뎡에잇는 미농쥭철공소에잇는 중국인이사사명은 그공장에서 나오는길에 룡강뎡이번디에서 호떡장수하는중국이왕강주의집에들어가서 떡을먹다가 서루싸홈이되야 매우맹렬함으로이곳을

지나가든
인천화평리삼백오십삼번디에사는 김몽학은 무슨일이 나고 리유를무럿더니 그자들은 불문곡직하고 억개에미고단이는 목도대로다가 김봉학을때려서 양편이 갈나젓는데 한편은두치가량이 나 째여지고 한편은 한치가량이 나 째여젓슴으로 그곳을지나는 조선인들은중국인이 죠선인을 때렷다고 고함을치고아단을하야

순식간에
삼사백명이모혀들엇스며 근처에잇든 중국인도오륙십명에 달하얏스나 도뎌히당치못할줄을알고 제철소안으로 들어가서 문을안으로닷고 잇슴으로죠선인들은 내여노흐라고하며 혹은 불을지르라는등의 고함이 사면에서야단으로 일어나서 매우위험하든차에 이급보를 드른인천서에서는칭명의 경관이 달녀가서겨우진무하고 중국인과모자오륙명을 데포취조중이라더라(인천)

小作會의決議着々實施
디주들도서달음이잇섯는바
쇼작인의요구대로착착실행

광쥬군 우치면 소작인회의로심 한쳠괴로 그회에서결의한것을 유감업시 실행하엿다는데 그내용을 드른즉동양척식회사소작료지불괴를당하 운반의불공평과 평곡의 사용문데로 소작인회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요구를실행하기권에는 소작료를 지불ㅎ지 안켓다고하엿슴으로광주군청과경찰서와기타각농장과디주측의한문데가되여엇더니군낭국과 경찰당국의중재로 원만히해결되야결국 평목도실현하고 시리이상의 운반비도 소작인에게지불하얏스며 관계각농상과 디주들도 쳡차해결이 원만히진행중인데 그중에도 취미잇는것은 소작료사할을실행한 디주에게도

재작년도
에소작인이지불한디쇄공과금을환수한다는문데이 그방법은 소작인회결의대로 돈일원에벼한말식내게하야군부한장소에싸흔벼가 사백여셕인데 이광경을당한디주들은 간단이 셔슴하야 쇄금을반환하는동시에 소작인회의결의대로실행하겟다는교섭이답지한다더라(광주)

居間이五百圓詐取
벼를사라고강권한후계약금
오백원만바더가지고숨기여

시내수청동삽딩목사백삽십삼번디「고희상」당년사십사세되자는원래 곡물거간업에 종사하든바 지나가이십팔일에 동삽덩목에서 정미소영업을하는「홍운심」씨의집에가서「벼」의견본 두봉련니를 내보히고 그와가튼벼 삼백석이 잇다고말하면서사기를 간권함으로 홍운심씨는사기로 약속을 한후에그자는다시말하기를 그벼는 방금 모운송뎜에이순속 현금오백원이 잇서야 차자오겟다하고

돈오백원을
계약금으로먼저지불ㅎ여달나함으로 홍운심씨는그리하라 승락하고 즉시현금오백원을주엇더니그자는그후ㅇ여러가지빙자로 벼를인도치 안이하고 비밀한곳에 잠복하야 그림자죠차 볼수가업스매 홍운심씨는 매우의아하는생각으로그자의말하든사실의진부를죠사하여본즉벼가잇다는말은멀청한거짓말인것으로발각되여그자를차자노고계약금

오백원을
돌녀보내라하얏스나종시실행치안이하는까닭으로 필경소관서대문서에고소를데기한결과 동서에서는 그자를데포하야 방금엄중히취됴하는중이라더라

意外兒를發見
아희일흔사람은 종로서로오시오

재작 이일오후한시이십분경에 시내종로경찰서에는 어린아희를일헛스니 차저달나고ㄱ는이가 잇슴으로 각파출소로 통지하야가지고 아희어든사람의 유무를 죠사중이든바 동소문파출소에는 엇던로파가십이삼세의 남자은순이라는 아회를업고와서 이아희는 이거뤌젼ㅇ 어든아희인데 쥬소를 알지못하야보나지도못하고 지금은 먹을것도업스니 주인을차저주라고 하는바그아희의입엇든옷을볼것가트면 시내관수동을백팔십이번디이라고 한것이긔록되야그쥬소로일아본즉 그집에서는그러한아희를일흔일이 업다고하는고로 할수업시 종성부청으로보내여 보호를 의뢰하얏다는데 누구이든지 삽이삼세의남자아희를 일흔이는 종로서로통지하기를바란다더라

實彈千發密輸犯
京城에서도搜索하느라고
시내각경찰서에서는안비막개

요사이시내경찰서에서는일본의불경사건이발생된후로죠선의인심에셔지영향이밋치지안이할가하야엄밀히 경계하는중에 또왕쇄자뎐하의 경위문데로인하야 눈코뜰사이가업는형편인데 이번에는 더욱히중대사건의범인이 시내모처에 잠입한듯하야 일방에서는 경계와일방에서는 경위와또일방에서는 수색을 하는등 시내경관이 권부출동하다십히하야

사방으로
난호아며활동을하는모양인데금번중대사건의내용은모처로부터드른바에의하면지난달구일오전열시삼십분경에 부산잔교에서엇더한사람의소위인지는 알수업스나 권총의실탄 일천발을 슈하물처럼 표면을장식하야 가지고 어대로밀수코자하다가 림검하는경관에게발각될가염려하야그곳에내버리고간사실이잇는것을부산역장이 수하물을도사하든중에 발각하고

즉시부산
경찰서에급고하얏슴으로 동서에서는 시각을어긔지안이하고 범인의자최를 추격하엿스나 아직까지데포치못하고 근일경성시내에잠입한형적이잇슴으로시내각경찰서에통지하야그와가티수색중이라더라

白耳義式製造
세력은맹렬한것

전긔권총탄환일천발을권문가로하야금감뎡케한결과 그탄환은백이의국」식으로 제조한것인데 그의 위력이 다른것에비교ㅎ야 매우맹렬하다하며 그탄환이 죠선에까지 들어온경로를 추측하면 발견하든날오전열시중에 부산에 도착봉련발렬차를 것치어서 운수된듯한데 사실을발견케된경관들은한참동안 가슴이 서늘하엿든모양이라더라

治道와民怨
동외도로라고하며서 삼동도로와가터닥거

이번에 군청의 계획으로경산군자인면에서 청도군디경까지 치도를 시작하엿는데 그것은 동외도로라하야 도로에들어가는토디는불톤삽불안이주고 수유하고 디방비보죠도밧지못하고 전부민 부담으로하게되얏는데 말은동외 도로라하야 관청보죠도 업시며 십디로는거진 삼동도로와가티로면삽간주측볼간합사간이나되도록 치도함으로 경제공황으로 [illegible] 어려운 때에 넘어나 뎐답의지나는부담을 식힌따고민원이잇다더라(경산)

大同江의結氷
우마차도통행하고 스켓도셩행이되다

평양대동강으로 말하면 례년에는 십이월초생이면 굿게얼어서 우마차가통행하엿든터러 빙상스켓트 운동이 자못성황이더니 금년에는요사이에야 어름이 견고하야져서우마차도 통행하고 스켓트운동도성행한다더라(평양)

十歲孫과十圓金問題
仁川花町劉基淳家의黑幕속
가몽자를다려가라고편지를하고 차지러온그조모에게돈을내라고

인천부화뎡삽오번디「윤쥰」씨의집에는 지나간십이월 삽십일날경에 당년오십팔세된 늙은녀자 하나히 몸숙한일이잇섯는데그녀자는언을한사령이잇서 타누를하면서 말하기를 나의집은충청남도 함안군쥬산면수곡리인데 금고모부라진이를르지즈며검식을하다십히인천까지 이 이와가튼엄동설한에 긔항해부온것은 귀중한나의손자를 찻기위하야

왓것만은
그손자를보고도 찻지못하게되니 엇지 분하고엇울치안이하겟슴니까 그내막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칠년뎐되든 칠월경에 나의장남「심문옥」이가 병으로여러달을두고신음하다가참혹히이세상을떠낫셧는데 그때혈육이라고는네살먹은「심건택」이라는 어린손자하나밧게업셧슴니다 그러한데 아들죽은지 두달이되지못하야 하로밤에는과부된며나리「변ㅇ녀」그때(이십구세)가천그

심건택을
업고어듸로도주하고업슴으로사방종적을탐지하려하얏스나종시알지못하고일각이삼추가튼세월을보내다가그럭저력이 개년이지난뒤에인천서그며나리가 [illegible]셔신이잇서 [illegible]본것과다 틈업는 할미된사람의마음에 그깃붐이 과연 엇더하엿겟슴닛가 일가친척까지 그소문을듯고 깃버함을 말지안이하엿슴니다그래서빈곤한 살님에

동대서취
를하야만치못한 려비를 변통한후 집을떠나하로사십리오십리에 지나지못한 행보로 십여일만에 겨우인천에도착하야 분명치못한주소번디를찻느라고또한무한한곤난을 격고서 그손자잇는곳을차진바 곳시내화뎡일뎡목삽삽사번디「류긔순」의집이엿스며 과부된 그며나리는「류긔순」에게로 개가한바되엿고 손자 심건택은의붓아범밋헤서 잘아나게 된것이엿슴니다그려서

그손자를
다리고가려고 하엿스나 어린것의마음에 따스뜻한 어미의정을 쎄치기도 어려울뿐안이라 어미된사람도 더길너셔보낼터이니 그대로가라하기로 손자가 살아잇는것만 보고집으로 도라갓것슴니다」 그후에동재아달「심문춘」이가인천까지 왓다가그쥭하건태를다리고 고향에가서 길너든중 우연히 병이나서 백방으로약을쓰나효력이업슴으로더러어미를

부르짓고
울기만하기로할일업시죽개된것을인천까지다시다리고와서변것녀를보고좀더길너서달나고간청을하엿든바변것녀와류긔순도역시그리하겟다하기로만번다행히알고갓셧다가그럭저럭또사개년이지나서 그손자는 십세가되엿는데 뎐긔류긔순의 내외가셔로의론하고「건택」을다려가라고지난달에편지를하엿기로려비의관계로 여러날을지체하다가엇지엇지하야

겨우인천
을왓더니다려가라든손자는 주지도안코 류긔순은 불공설화를하며 의복을 파렬하면서 금십원을주지안으면 손자를내여놋치못하겟다하고내여쫏침으로 할일업시 가로상에서 갈비를알지못하고 방황하는중인데 돈십원이 업슴으로하여 손자를다리고 가지못하게된다고 애걸을하며 일변동리사람의 말을듯건대 돈십원을청구할것가트면 당초편지할벼에

돈십원을
가지고와서손자를다려가라고하는것이 당연하거늘 아모말한마듸도업시잇다가별안간 돈십원을달나하는것이 넘어무리한 일이라하며 또는양육비를 바들것가트면 하필수원만안이요 또한 밧고못밧는중우도잇슬것인데십원문데는 엇더한리유이냐고 평판이 랑자하며 윤쥰씨의집에서는 그늙은녀자의 형상이 가긍함을 동정하야 그와가티 자긔집에서류숙하게 함이라더라(인천)

危險한河豚
慶山에서中毒致死
하마터면전가족이 다죽을번한큰비극

경산군 자인면 남촌동의사는홍재력은 그누이되는사람이 부산에서 도라오는길에 복어두어마리를사다주는고로 국을끄리여셔 원기죽이는하먹엇더니그중에쥬이된는 홍재력은죽사하고다른사람들은응급치료를한결과 근근생명은구하엿다더라(경산)

◇◇◇◇◇ 잔소리 ◇◇◇◇◇

▼잔소리군은지나간이일오후한시경에 마진황금뎡네거리를 지내다보닛가 숙사파출소압해 오고가는사람이 위지삼삼을하고 그가운데에는 교군도노히고우산도섯는데 쇼사는 얼골이 분바른지하나를 잡어다노코 마치무슨중대범인이나잡은듯이 취됴를하는모양이엇다▼잔소리군은생각하기를 아마중대범인이 가장을하고 가다가 져와가티 잡혀엿나보다하고 갓가히가서 자세히보즉한편으로우습기도하고 한편으로 딱하기도하얏다▼그잡혀안진일행은중대범인이 안이라엇던 시골사람의신행차인데 엇던지 란군이 안부의 얼골에다 분을발나서 할일업시낫에난독갑이를 만들어 노핫셧다▼파출소슌사는 그것을 이상하게녁이고 그안부로부터 신랑, 후행등륙, 우산까지모다어류를하야노코「왜가장을하고시가로다니느냐고」 무한히힐난을하는모양이엇다、슌사는일본인인가 하얏더니 멀정한 죠선사람이겟지

謹賀新年

靈光法聖 書堂 訓導 文承五
靈光法聖浦 崔濟冕
靈光法聖浦 靈光水聖金融組合
靈光法聖浦 李聖珪
靈光法聖浦 賣藥商 羅啓炯
靈光法聖浦 申明燁
光州邑內 叔摺 張鳳翼
光州邑內 質屋 鄭泰模
光州邑內 青年 趙錫俊
潭陽邑內 紳士 鄭湧寅
潭陽邑內 精米業 李福宰 李泰國
潭陽邑內 精米業鞠昌烈
潭陽邑內矢迷店 主務 黃瑞顯 主任 曹東植
潭陽邑內 本店 全南潭陽 李道承商店
潭陽邑內 潭陽產業組合
潭陽郡廳 郡守 白興基
靈岩郡廳 宋元燮 趙尙滿 上田憲志 宮本茂
靈岩邑內 靈岩產業組合 職員一同
靈岩邑內 有志青年 河憲贊
靈岩邑內 有志青年 河灼秀
靈岩邑內 有志青年 金俊化
靈岩青年會長 金俊午
靈岩邑內 憲光自轉車舖
靈岩警察署 警部 前田利眞
靈岩驛里 崔喜重
長興郡廳 郡守 朴勝源
勸業課長 小寺淺次郎
長興警察署 署長 多田義一
長興邑內 維新商社 朴鎬九

長興青年會長 吉幸植
長興邑內 辯護士 孫英
長興 寶城 康津 水門浦 金明集自轉車部
京南線廣川驛前 鄭元植
京南線廣川驛前 朝鮮日報洪城分局 分局長 兪春植 總務兼記者 申正直 記者 李信永 寫眞師 吳世鎭
忠南廣川 廣川青年會 會長 李正求 副會長 吳綺煥 總務部長 金東河 德育部長 李信浩 志育部長 李圭敬 社交部長 宋仁直 經理部長 申正植 常務幹事 郭元 鄭泰復
瑞山郡安眠面倉基里 賈在昌
洪城郡廣川面廣川里 張東煥
洪城郡廣川面佳亭里 朴絅鎭
廣川市 廣川理髮館 田璜
京南線洪城驛前 鮮滿運送部 主任 沈彰燮 主任 沈[illegible]燮
海陸物產委托販賣業 貨物運送 維信運送支店 主任 沈昌燮
大阪帝國機械合資會社 忠南代理店 京南線洪城邑 主任 鄭源 內務 申功烈 外務 朴龍珍 理事 沈昌燮
京南線廣川驛前 穀物販賣 物產委托 大昌運送店
京南線廣川驛前 普信運送店
京南線廣川驛前 永久運送店
京南線廣川驛前 穀物貿易 委託販賣 運送業 運送店 主 李明西 金□會 盧載昇
京南線廣川驛前 沈載厚
各科專門 愛信堂醫院 院長 崔漢奎
洪城郡廣川面瓮岩里 文□
洪城郡 谷面柏松里 金東河
振興會 敦睦會 保寧郡藍川面蘇城里 高麟濟

洪城郡廣川面內竹里 李我敎
同 廣岩里 李浩
同 瓮岩里 金東赫
同郡長谷面花溪里 尹埴
同郡廣川面溪山里 金俊明
京南線廣川驛前 株式會社湖西銀行廣川支店 支店長 李正求 代理 尹時業 行員 成瑗鎬 同 尹麟九 同 任慶錦
洪城郡守 李敏寧
忠淸南道洪城郡廣川市 京南線廣川驛前 穀物商 主 白明鉉
京南線廣川驛前 營業科目 指環 眼鏡 貴金屬品 和洋雜貨 廣興運送部
京南線廣川驛前 朝鮮運輸合名會社 廣川支店 主任 李信永 金永煥
京南線廣川驛前 營業科目 海陸物產委托販賣 魚類 鐵道運輸 新運送本店 主任 申正直 同 姜有馨 同 金明外
京南線洪城邑 湖西印刷所 電話二六番 電略(ホ)又ハホサイ
活版印刷 和洋諸紙 官公署用諸文 族譜印刷 其他文房具 主任 朴龍珍 事務員 方孝甲 裵秉敎 曹圭昌 金東殷 田溶薰
京南線洪城邑 和洋諸紙 帳簿製造 活版印刷 洪州印刷所
京南線洪城邑 各種時計 眼鏡 蓄音器 附屬品一類 金星時計店
京南洪城邑 洋服店 主 全聖洙
京南線洪城驛前 廣信運送店 主任 鄭元慶 李永
洪城郡洪州面五官里 洪州醫院 醫師 主 李容弼
印章名刺 金銀扶燈 金尙
京南線洪城驛前 海陸物產 委托販賣 湖西運送店 主 閔雄植 李弼
馬山府午東洞一七一 李起變

馬山府萬町 角丸印刷所 主 黃義性
馬山府石町 穀物貿易 崔謹朝
馬山府俵町 朝鮮料理 漢陽館
馬山府元町 朝鮮穀物外國雜穀精白米商 崔相麟店 電話五二番
馬山府元町埋立地 穀物貿易業 咸在鶴商店 主 咸在鶴 金桂天
馬山府俵町 酒類雜貨曹達灰洗曹達 三角商店 店主 朴振奎 李琫和
馬山府元町 明山旅館 曹京錫
馬山府元町埋立地 米雜穀輸出入并委托販賣 金性範兄弟商會 電話一五六番 電略(キ)ヌ(ハ)ロ
馬山府元町 綢緞綿布商 李基一商店 電話一四一番
馬山府俵町 李鉉覺
在馬山驛前 余日光運送店 店主 朴泰允
馬山府石町 諸物產委托及貿易 吉興商店李順吉 電話二六八番 電略(又キ)キチ
馬山府俵町 李鉉庠
馬山府石町 各種藥製造都散賣商 花山堂 李廷讃
在馬山驛前 委托業 南鮮運送社 電話二四番 店主 明道奭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千鶴權
馬晉自動車會社 舊馬山停留所 電話一一番 徐善明

朝日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代理店 馬山府元町 海陸物產委託販賣 貿易及貸付業 元東貿易株式會社 電話二〇七番 電略(ケ)又(ケ) 振替口座京城八一〇五番
馬山府元町 馬山穀物商組合 電話二三三番
馬山府石町 馬山產興貯蓄組合 理事 徐光遠 書記 宋錫守
馬山府元町埋立地 橫濱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代理店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代理店 穀物貿易精白米業 二星商會 電話長二三〇番 電略(K)又ハ(ケ)
馬山府元町 海東用達牛皮牛油 活牛買貿易商 朴連守 現住昌原郡鎭海面飛鳳里
馬山府元町埋立地 倉庫業及運搬業 馬山倉庫株式會社 橫濱火災保險株式會社代理店 電話二三一番
馬山府元町埋立地 米穀 綢緞 委托商 李澤龍商店 電話一三三番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產委托販賣及貿易商 朴明克 電話三〇六番 電略ㅂ又ハ(ホク)
馬山府元町魚市場 海陸物產委托販賣兼鮮魚運搬 金漢榮 電話七番 電略(ヨ)又ハ(エイ) 在馬山驛前運送部 電話二六一番
馬山府元町埋立地 原鹽再製精米 雜穀貿易販賣商 徐在坤商店
馬山府元町魚市場 魚船艙商民組合
馬山府石町 洋靴改良靴製造 運動具及附屬品類 克山洋靴店 朴淳英 電話三四二番 振替京城一六六三番
馬山府萬町 李洪浩 電話三〇七番
馬山府石町 海陸物產委托販賣 恭共商會 電話一〇八番 電略ㅎ(又セ)ヨ 店主黃甲周 自宅電話六番
馬山府萬町 三省醫院 電話三〇一番
馬山府壽町 貸座敷料理業 嶺南樓 妓生同
馬山府壽町 米國싱거裁縫機械會社 馬山分店 主任 朴永鉉 電話二七〇番 電略シ又ハ(ホ) 日本中國綿布株式會社馬山特約店

家樂里人士의敎育熱

殷栗郡北部面家樂里는百餘戶에達하는一大村落으로敎育機關이無함을恒常一般이遺憾으로思하던바同里有志洪順洙洪洛鎬洪敬善諸氏의熱心周旋한結果昨年夏早터新明義塾이라는私塾을設立하고一般子弟를敎育하며또한勞働者의無常識함을慨歎하야去月十日早터同義塾校舍內에서三個月豫定으로勞働夜學을開하고洪敬善洪洛鎬兩氏는三[illegible]으로義務敎授한다하며此夜學에對하야出捐한隣洞人士의氏名及金額은如左하다더라

朝鮮語 日語 算術 漢文等課目

[illegible]三圓 李弼英二圓 [illegible] 一、[illegible] 各一圓 金學根、[illegible]、金秉連、李成根、鄭泰容、姜[illegible]、洪性章各五十錢(長連)

甲山邑水利稧盛況

咸南甲山郡長平面에는大正七年으로부터面의經營으로水利水稧를計劃하야鎭東川水洑를開鑿하얏는데甲山邑東門外를經由하야南門外原野를通한水田面積이略七十町步以上에達하야日本海道로改良稻赤尾種坊主種을購入하야氣候의適當을利用한終結果年來地方産米로需要供給이[illegible]不啻라隣郡輸出이多大하고水道使用料의收入으로面民의賦課를輕減케하던바今年春에郡面의方針으로蒙利區域人民의게引渡하야蒙利民으로水利稧를組織하고道廳의認可를得하야水利業을着實進行하는데去月十四日에水利稧會를長平面事務所內에開催하고役員選擧와事業計劃을決議하얏는데役員氏名은左와如하더라

契長金俊[illegible] 副契長金[illegible] 監事[illegible] 評議員[illegible]外十一人(甲山)

富川內各學校財産

八萬四千餘圓

富川郡內各普通學校(五校)의去十二月二十五日現在의學校財産을見하건대土地와建物價格을合한公用財産及現金[illegible]基本財産을學校別로示하건대左와如함

校名	公用財産	基本財産
富平	一七、五六五	三、五九九
富川	一七、五二四	七〇〇

蘇萊	一三、九四三	一八四		
永宗	一三、五八一	一八四		
大阜	一七、二七〇	一八四		
計	七九、八八二	四、四八二		

▲富平公普校

十三年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四年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五年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六年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蘇萊公普校

十三年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四年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五年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六年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永宗公普校

十三年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四年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五年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阜公普校

十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集賢面長의敎育熱

慶南晋州郡集賢面長金溶璿氏는原來로敎育上誠意가만흔바今般에面內有志와握手하야集賢公立普通學校期成會를組織하야熱心活動中이라는데그任員의氏名은左와如하더라

會長金溶璿 副會長金洛錫 監事具鳳善 白祥彦 評議員朱[illegible]外三十二名 書記鄭弼鎬 會計沈在久(晋州)

海坪青年活動隊美擧

時代의變遷과文化의進展을따라繰越時々로向上하는文化的新現像에應하야々에發現됨은可히써二十世紀文化時代를標榜한다하겟도다城津郡鶴東面荷川青年會는組織된以後로基本金이無하야困難이無數하던바本郡鶴中面海坪青年會活動寫眞隊에서一日間該地에出張하야興行한바收入金三十五圓及寄附金四十餘圓을全部를寄贈함으로該地靑年會一同은稱頌不已하더라(城津)

富川郡學校費

僅히六萬一千餘圓

富川郡學校評議會를昨年十二月二十五日에開催한다함은本紙에報道하바와如하거니와預算과如히同郡廳會議室에서開하고今年度學校費歲入歲出豫算에對하야諸問하엿는데歲入經常費及臨時費를合하야六萬一千八百八十七圓인바其中昨年度에比하야變動된點은素砂普通學校新築과蘇萊普通學校新築工事에對한地方補助金五千圓寄附金七千圓이歲入에增加된것이라하는데大槪의豫算은左와如하다고

歲入經常之部

繰越金	三、五〇〇	[illegible]
補助金	一〇、〇〇一	五、〇〇一
寄附金	一三、〇〇〇	五、〇〇〇
前年度入	[illegible]	[illegible]
計	三五、〇〇三	一三、五〇三

歲出經常之部

評議會費	四六	[illegible]
學校費	[illegible]	[illegible]
基本財産造成費	五三〇	四八〇
選擧費	五	[illegible]
財産管理費	一五	[illegible]
國庫納金	二〇一	一八五
學校費取扱費	二、〇三五	二、一八一
雜支出其他	九四九	七三
計	四四、八八七	四二、〇二五

臨時之部

學校建築費	一七、〇〇〇	七、八〇〇
計	一七、〇〇〇	七、八〇〇
歲出合計	六一、八八七	五〇、三二四

(仁川)

李龍三氏의特志

安邊郡鶴城面美峴里는敎育의發展과文化의程度가低할로緊然히觀望途程에至하얏슴은其因이同里基督敎會에[illegible]入한結果에依한다그러나同敎會里는不過十餘戶에信者로써維持가困難하야今年으로敎堂의設置가甚히不備함을遺憾으로思하야오던바同里李龍三氏는勞働의生活을하야오면서도信仰에熱實한同時에去般에도金三十五圓을義捐하야鍾閣을設置케하얏스며近日에又復十圓金을義捐하야掛鍾을備하얏슴으로同敎會에서는謝不已하더라(安邊)

南原鐵道期成會

全北南原郡에서는去月二十日夜에南原鐵道期成會委員會를開催하고左와如한事項을決議한後散會하얏더라

一、本府鐵道部工務課長新田氏來南의經過報告
二、新田課長과의相議에依하야物資調査의件
三、陳情書製作時期及方針의件
四、全南光陽、潭陽、求禮並慶南河東의觀察委員選組織의件
五、運動上各事項及時期의件
六、物資調査委員選定及調査上細部打合의件(南原)

書畵展覽의盛況

慶北昌寧少年會에서는一週年紀念하기爲하야去月二十三日에天道敎昌寧宗理院에서各少年會々員書畵展覽會와手工品陳列을하얏는바旣히本報에報道하얏거니와當日會場에[illegible]

慈仁青年會舘建築

慶北慶山郡慈仁青年會는創立한지二個星霜을經하도록會舘이無하야一般이恒常遺憾으로思하던바去十二月十二日에會員懇談會를開催하고地方有志를請邀하야舞商協議한結果多數의同情金을得하야不日起工할것인데同情한有志의氏名及金額은如左하더라

張在洙五百圓 石濟元三百圓 黃鎭洪三百圓 金秉河二百圓 鄭昌順 金斗南 黃宙洪 李圭祥各百圓 崔璘錫 金弘培 崔秉熙各七十圓 崔仁淑 姜文佑各五十圓 金發振二十五圓 崔共八 金采鎰 尹炳烈 金容弼 石容求各二十圓 朴震 高卜伊 沈得伊各十五圓 崔允熙 金順一 裴炳淵 李鍾來 安東烈 金一鎰 崔周錫 朴柱浩 鄭文駿 徐璟洙 金泰鎰 朴鍾海 姜亨遠 崔鳳久 姜立鳳各十圓 鄭榮柱八圓 安龍三七圓 金斗天 李寅南 石應柱 李丙南 李炳秀 金斗河 李先宗 黃仁吉 林南駿 李相琦 裴錫佑 崔鳳建 金小明 金泰甲 崔致浩 朴士順各五圓 金鳳月 朴斗元各四圓 金德佑 河相佑 徐致淑各三圓 金文玉 崔致祥 崔佑先 裵金玉 東小得 朴在煥 陰章源 李鍾卓 下一甲 朴慶道各二圓 秋小伊一圓(慶山)

富川內各學校計畫

富川郡內各普通學校의今年부터四年制學級編成方針을듯건대아래와갓더라

▲富川公普校

年次	學級(男)	(女)	計
十三年	七	三五	四〇	三九
十四年	八	三五	四六	三九

栗里面人士의敎育熱

黃海道瑞興郡栗里面에는敎育機關이업서々時代的文化發展에遲色이잇슴을一般은遺憾으로生覺하던中當地有志諸氏의發起로去年十月부터支彰學校를設立하고學生을多數募集하야熱誠敎授함으로成績이顯히良好한中特히感謝한것은當地有志趙英氏는敎鞭을잡아獻身的努力하며高等講習院을各지經營하기로活動한다더라(新幕)

法律簡易相談所設置

新義州眞砂町四丁目角에法律簡易相談所가設置되얏는데其內容을聞한즉日前辯護士는法律顧問으로推戴하고朝鮮人日本人間法律에暗昧하야事件의結果가如何히될는지不知한者에對하야法律鑑定을無料로하야주고其他債務取立과債權債務의整理와諸文案起草와訴訟及登記手續을懇切敏速히하야주는機關이라더라(新義州)

鶴泉面各稅金額

咸北城津郡鶴東面의大正十二年度地稅及附加稅와地稅制와學校費戶稅附加戶別割의金額을如左하더라

地稅	一、八三三	四四八、一九
地稅附加稅	同	三五四、〇一
地稅割	同	一、二一、〇三
學校費	同	七九、六六
驛屯貸付料	同	一四三、六二
驛屯土拂下代	同	六六、四〇
戶稅	一六八戶	三四四、五〇
戶稅附加金	同	一三六、一五
戶別割		一、六五、一〇
計		一、三四四、一〇

名 圓 (城津)

荷川青年會講習所

城津荷川青年會主催로初等男女講習所를設立하고其經費一切는靑年會에서負擔敎授中인데現下生徒수가三十四名에達하며學科는全部初等이며講師는馬東觀、馬務翼兩氏이라더라(城津)

安邊公普學藝會

安邊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月二十七日에第二學期末學藝會를擧行하얏는데各級男女生徒의爛漫한彩畫와奇妙한書帖을展掛하야一般의縱覽을供하고十一時부터校長松尾百合之助氏의開會辭로始하야郡守姜曦氏의祝辭가잇슨다음男女의歌舞遊戲、合唱이잇서々農村父兄의만혼喝采를주엇스며午後三時에終了하얏다더라(安邊)

新刊紹介

▲朝鮮實業(新年號)新年의卷頭辭를卷頭로常識、經濟恐慌과吾人의活路商業과商人、朝鮮人蔘에對하야等調査、實業界人物과雜感漫載(定價四十錢發行所京城府堅志洞五十四番地其社)

謹賀新年	安比公立普通學校 校長 比嘉朝治 訓導 吳甲守 同 鄭基同 同 徐柱同 同 金錫振	權他官	府北面事務所 面長 申秉澈	清道面事務所 面長 金常源	二同面事務所 面長 曹喜默	昌原邑內布敎堂 朴萬善	下南面事務所 面長 金瀚壽 書記 趙益見	徐萬燮	金在坤	朴海眞	尹致琇
	米穀商 李承鉉	金文洙	密陽城內 岩田醫院								

密陽青年會	郡守 閔麟鎬	密陽郡廳職員一同	金斗厦	密陽表忠寺	密陽丹場面表忠學校	朝鮮佛敎青年會表忠支會	朴秀曄	密陽城內 株式會社 慶一銀行
密陽城內 株式會社 密陽銀行								

密陽城內 半島洋服店	密陽邑內 佛敎布敎堂	三浪津基督青年會 會長 金鍾明	下東面事務所 面長 金成濟	下東面職員一同	孫永曔	上東面事務所 面長 安範遠	上東面職員一同	丹場面事務所 面長 孫台憲	丹場面職員一同	朴海鵬	密陽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許鉛
朴在夏	孫浩瓘											

李元孝	薛鎭壽	下西面事務所 面長 具益書	金長官	姜學用	李相厚	韓春玉	朴春琴	密陽郡廳前 (迅速親切) 活版印刷帳簿諸用品 和文學生房具 (字形鮮美) 東一印刷所 主 金敬得	密陽郡下西面武安里 內科外科 東元醫院 孫吉憲	代書業 張達祥	代辯業 文鳳來	密陽城內 朝山醫院 齒科一般口腔外科
李彦識	曹祥奎	曹喜文	李永集	朴漢杓								

朴秀弼	泉豐	朴品熙	朴章億	植原旅舘	嶺南酒造株式會社	密陽蠶種製造所	密陽財與株式會社	密陽郵便局職員一同	密陽水利組合	播井三省商店	密陽煙草耕作組合	三省醫院々長 岡山醫學士 金炯達
趙性烈	密陽面職員一同	密陽城內 密城洋靴店 主 金來鳳										